개발기 모랄의 위기 서사와 건전한 속물의 탄생

: 김승옥의 대중적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김은하 *

차례

1. 대중 서사의 선정성과 속물들의 전성시대
2. 속물(snob)의 성숙과 결혼의 통과제의: 『보통여자』(1969)
3. 건전한 도덕의 토대인 가정과 바람난 주부의 섹슈얼리티: 『강변부인』(1977)
4. 결론

〈국문초록〉

김승옥의 『보통여자』와 『강변부인』은 도시 중산층의 이상(異狀)적인 성적 행동 혹은 스캔들에 대한 서울판 킨제이 보고서로서 한국 근대성의 은밀한 속살을 들추어내는 대중소설이다. 특히 『강변부인』이 보여주는 강력한 선정성은 독자에게 도덕 과잉의 파시즘 사회가 가하는 무력감과 긴장을 상쇄해주는 쾌락을 선사하는 한편으로 계급적 격차에서 비롯된 열패감을 위안하거나 도덕적 우월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대중소설의 기능에 충실하다. 그러나 이 대중적 장편소설은 현실의 반경 안에서 쾌락과 이익을 저울질하는 중산층 계급의 속물성에 대한 탐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흥행 코드로서 외설의 상상력을 넘어선다. 신분이동을 향한 열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자기통치의 능력을 갖춘 중산층 계급의 뛰어난 계산감각을 가시화하는 한편으로 이상적인 것을 상실한 지리멸렬한 삶 속에 도사린 일탈적이고 불온하기도 한 충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중 소설들은 개발독재기 서울로 상징되는 욕망의 도시에 입성한

*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남성 주체들이 자기의 허위를 일깨워주는 '여성'이라는 '의미 있는 타자'를 상실하고 부권중심적인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지배적 남성성을 획득함으로써 '건전한' 속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소설들은 김승옥 문학에서 드물게 여성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지만, 여성은 이전 김승옥 소설이 보여준 바와 달리 도덕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상실한 채 지극히 평범한 속물이나, 제어되지 않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혐오의 표상으로 전락한다. 신화의 세계에서 추방된 여성은 언뜻 물질적, 성적 육체를 획득함으로써 일말의 자유를 얻기보다 발전주의 국가의 헤게모니적 남성 주체가 통치하는 가정 속에 편입된다. 이는 김승옥 문학의 남성 주체들이 자기 심문의 원인으로서 여성을 상실함으로써 통속적 이해관계에 맞서 자기 진실성을 확보하는 대신 가부장적 모랄의 주체가 될 것을 예고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어 : 속물, 대중소설, 서울, 근대화, 젠더 정치, 규범적 여성성, 고결한 섹슈얼리티, 성담론, 파시즘 등

1. 대중 서사의 선정성과 속물들의 전성시대

『보통여자』(≪주간여성≫,1969.7.9-12.3)와 『강변부인』(≪일요신문≫, 1977.4.3-9.4)은 상업적 매체에 연재된 대중소설로 『60년대식』(≪선데이서울≫, 1968.9.22-69.1.19)과 함께 그간 김승옥 문학이 쌓아올린 명예를 해치는 예외로 여겨져 왔다. 김승옥도 문단의 이러한 비판적 평가를 의식한 듯 1995년에 문학동네에서 전집을 발간하면서 『강변부인』은 '소설이란 재미있는 이야기이다'라는 공식에 충실히 부응하려는 의도로 쓴 흥미위주의 통속소설로, 소설이 천박한 한 토막 이야기여서는 안 된다는 문학적 신념을 훼손한 듯해 스스로 견딜 수 없었다고 곤혹스러운 심경을 내비친 바 있다.[1] 대중문화는 대중의 생활세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발전해 생명력을 유지해온 민속예술이나 민중예술과 달리 교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관람자 또는 소비자 자체를 기획하고 창조하면서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고유한 미적 가치가 아니라 외적으로 부과된 환상의 내러티브를 향유하기 위한 물리적 계기로서 진지함과 심오함을 결여하고 있다.[2] 비정상적인 성관계와 잦은 성적 묘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야릇한 비밀과 추리적 요소, 직설적이고 적나라한 문체 등 통속적 모티프는 대중 독자의 지루함을 달래 주기 위한 것으로, 이 소설이 '감수성의 혁명'으로 상찬되어온 김승옥 문학세계의 파국을 보여주는 불행한 사례임을 뜻한다.[3]

송태욱은 이 매체소설들을 김승옥이 소설에서 영화로, 소수의 문학 독자에서 다수의 대중 관객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산된 중간 형태의 산물로 분류하고, 이러한 변이는 「환상수첩」의 자살을 꿈꾸던 '문리대의 환상'에 「무진기행」의 윤희중의 세계를 거쳐 속물인 세무서장 조의 세계로 들어선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의 문학적 특질이 대중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쓴 바 있다.[4] 그러나 송태욱이 암시하듯이 이 대중

1) 김승옥은 이 소설에 대한 부끄러움을 토로하면서도 '소설은 이야기'라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다만 이야기를 어떤 구성과 말투로 들려주는가에 따라 소설의 묘미와 성패가 따른다고 할 때 이 소설이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에서 인용한 대목은 『강변부인』에 대한 것이지만, 특정 텍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통속소설 창작에 대한 변명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김승옥, 「작가의 말: 나와 소설 쓰기」, 『강변부인』, 문학동네, 1995, 13-15쪽.

2) 대중적 내러티브는 일종의 도덕적, 문화적 퇴행성, 즉 자유로운 무도덕 상태를 즐기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저급한 내용과 표현 방식을 택한다. 즉, 그것은 대중 독자에게 더 많은 쾌락을 안겨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진지함과 심오함을 결여하고 있다. 김혜련, 『아름다운 가짜, 대중문화와 센티멘탈리즘』, 책세상, 2005, 67-95쪽.

3)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는 공히 종교적 호소력, 선정주의, 자기 향상의 동기, 개인의 모험, 발랄성, 민주주의, 적시성 또는 시사적인 관심, 유머, 환상, 섹스 어필, 이국성 등 여러 특징을 공유한다. 앨리스 페인 해케트, 이임자 역, 『베스트셀러의 진실』, 경인문화사, 1998, 93-103쪽.

4) 송태욱, 「김승옥 소설의 독자를 찾아서」, 『르네상스인 김승옥』, 엘피, 2005, 71-74쪽

적 장편소설들은 김승옥 문학 세계에서 '전향' 혹은 '전회'라고 할 만큼 이질적인 것이지만 어떤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김승옥의 소설은 4·19 세대가 혁명 이후 급속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자기보존과 욕망을 최우선시하는 속물로 변모해감으로써 자기 환멸에 휩싸이는 고백 서사로서 한국 문학에 '진정성' 주체가 출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의 문학적 페르소나인 지방 출신의 상경 청년들에게 서울은 고통스러운 선망/시기를 안겨주는 욕망/소외의 장소였다.[5] 서울로 상징되는 근대로 입사(入社)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망설임과 자기 혐오는 이들이 '진정성 윤리'에 추궁당하는 양심을 가진 자들임을 역설했다.[6] 반면에 이 대중적 장편소설은 서울과 지방의 경계에 선 이방인이 아니라 서울의 중산층 계급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간 김승옥 소설의 중핵적 표상임에도 불구하고 흐릿하기만 했던 서울에 일상성과 육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보통여자』와 『강변부인』은 각각 창작의 시기, 내러티브가 상이하지만, 공히 도시 중산층의 이상(異狀)적인 성적 행동 혹은 스캔들에 대한 서울판 킨제이 보고서[7]로서 한국 근대성의 은밀한 속살을 들추어낸다는 점에서 대중서사의 문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8] 일반적으로 부유층이나 특권 계층의 음란하고 일탈적인 이야기는 도덕 과잉의 파시즘 사회가 가하는 무력감과 긴장을 상쇄해준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현실에 엄연히

---

5) 졸고, 「이동하는 모더니티와 난민의 감각-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지방 출신 대학생의 도시 입사식(入社式)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년 3월 30일, 309-335쪽.

6) 김홍중, 「삶의 동물/속물화와 참을 수 없는 귀여움」,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55쪽.

7) 알프레드 C. 킨제이는 「인간 남성의 성생활」(1948)과 「인간 여성의 성생활」(1953)을 통해 사회적 억압과 종교적 금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성의 실상을 만인 앞에 드러냈다고 평가받는다. 조은·조주현·김은실, 『성 해방과 성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39쪽.

8) 김승옥 문학의 통속성을 압축근대기의 문화적 징후로 다룬 글로 다음을 참고할 것. 김경연, 「통속의 정치학 : 1960년대 후반 김승옥 '주간지 소설' 재독(再讀)」, 『어문론집』 제62집, 중앙어문학회, 2015, 373-420쪽.

존재하는 계급적 격차에서 비롯된 열패감을 위안해 심리주의적인 평등감을 충족시켜주거나, 도덕적 우월감을 안겨준다.[9] 그러나 이 매체소설들은 자극적인 내러티브를 통해 대중적 황홀을 자아내는 한편으로 위선적 성도덕으로 무장한 중산층 계급에 대한 탐구적 성격을 띠고 있어 흥행 코드로서 외설의 상상력을 초과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강변부인』의 강력한 선정성은 개발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구축되는 방식으로 활용된 모랄의 위기론을 차용해 건전과 근면 같은 중산층적 가치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한편으로 '고결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동의를 통해 중산층 속물 주체가 탄생하는 지점을 포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속물은 맹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화폐의 노예이거나 음흉하고 시기심이 많은 악인으로서, 사회의 보편적 도덕관념 혹은 정상 규범을 초과하는 예외적 개인으로 가정되기 쉽다. 그러나 속물은 모든 사람은 여러 종류의 위계 속에 등급별로 놓이며, 위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으며, 돈과 권력이라는 세속적 가치에 함몰된 존재라고 할 때[10] 고정된 신분제가 폐지되어 상호 비교를 통한 지위 경쟁이 본격화된 근대 사회에서 개인은 언제든지 속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본래 개인주의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기존의 전통 규범에 맞추지 말고 모든 결정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덜 편협하고, 보다 진보적인 새로운 규범을 발전시키라"[11]는 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해방과 전후를 계기로 싹튼 개인주의는 입신출세의 욕망으로 변질됨으로써 압축 성장을 이끈 동력이 된 한편으로 내면적 도덕을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는 진정성 주체의 탄생을 유도하지 못했다.[12] 김승옥의 소설은 신분 이동을 향

9) 김혜련, 앞의 책, 67-95쪽.
10) 속물은 화폐중심의 경제생활 속에서 욕망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과 탁월한 것(arete)을 음미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이 한,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미지북스, 2016, 17쪽.
11) 리하르트 반 뒬멘,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2005, 252쪽.
12) 소영현에 의하면 한국사회의 속물성은 근대 일반의 속성으로서 세속화 과정에서

한 열망을 현실화할 수 있는 중산층 계급을 통해 이상적인 것을 상실한 지리멸렬한 삶 속에 도사린 일탈적이고 불온한 충동을 그리는 한편으로 이들이 뛰어난 계산감각으로 건전한 속물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아낸다.

다른 한편으로 김승옥의 대중 소설은 남성 주체가 자기의 허위를 일깨워주는 '여성'이라는 '의미 있는 타자'를 상실하고 부권중심적인 가정영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지배적 남성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13) 『보통여자』, 『강변부인』은 그 제목이 암시하듯이 여성이 중심이 된 이야기이다.14) 그러나 여성은 이전 김승옥 소설이 보여준 바처럼 남성 주체가 속악한 도시-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짓밟거나 외면하는 희생자로, 수치심이나 죄의식 같은 도덕 감정을 일깨우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 등 개발기 대중소설이 여성 희생자를 통해 고결한 가치들의 상실이라는 근대화의 위기를 가시화하는 한편으로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승옥 소설에서 여성들은 도덕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지극히 평범한 속물이거나 제어되지 않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힘으로써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위험으로 표상된다.15)

점차 확대되어간 중심과 주변들의 격차를 사회의 일원들 각자가 의미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그 격차를 극복하고자 한 노력들 가운데에서 안착되었다.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 헝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 제 32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306쪽.

13) 김승옥 소설이 한국문학사에서 의미 있는 탄생으로 기억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접촉을 시도하는 자의식적 개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심판할 자기 나름의 법정으로 유비할 수 있는 '내면성'을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자기 진정성의 이념은 '나'는 자기 본연의 독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가 부여한 의무가 아니라 이런 본연의 내면과 접촉할 때에만 나의 삶을 진실한 것이라는 근대적 이상을 함축한다. 찰스 테일러, 『불안한 현대사회』, 송영배 역, 이학사, 2001, 134쪽.

14) 김승옥의 후기 소설이 여성의 개인, 주체, 자아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다음을 참고할 것. 이은영,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 연구: 「야행」과 「보통여자」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 62호, 한민족어문학회, 2012, 427-450쪽.

15) 권보드래 · 천정환에 의하면, '호스티스물'의 범람과 ≪선데이 서울≫류의 관음증이 상징하는 것처럼 누구도 순결하지 않다는 난폭한 의식은 1970년대의 특징이다. 그 의식을 스스로 과장하면서 폭력적 유린의 과정을 거친 후 찾아드는 한 켠의 죄

신화의 세계에서 추방된 여성은 물질적, 성적 육체를 획득함으로써 일말의 자유를 얻기는커녕 발전주의 국가의 헤게모니적 남성 주체가 통치하는 가정 속에 편입된다. 그리고 김승옥 문학의 남성 주체들은 도덕적 지평으로서 여성성과 여성적인 것을 상실함으로써 통속적 이해관계에 맞서 자기 진실성을 확보하기보다 가부장적 통치 주체로 태어난다.[16] 어디까지나 기성의 사회가 허락하는 규범 혹은 질서 내에서 이른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팀닉하는 속물이 탄생하는 것이다.[17]

2. 속물(snob)의 성숙과 결혼의 통과제의: 『보통여자』(1969)

『보통여자』는 여성이 주된 독자층인 ≪주간여성≫에 연재된 소설로 중매를 통해 만난 중산층 계급의 남녀가 자신들의 결합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담고 있다. 중매는 각자에게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 서로가 가진 것을 교환하는 거래로서 합리적이지만 서로를 향한 순수한 전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의 장애물이 된다. 이 소설은 주인공 남녀가 혼인 소동을 겪는 한편으로, 의식적 조작 혹은

의식, 또 한 켠으로 비로소 생성되는 남성적 유대와 남성적 성장의 서사-이것이 1970년대 대중서사를 특징짓는 공통의 화소이다.(권보드래 · 천정환, 『1960년대』, 천년의 상상, 2015, 79쪽.) 그러나 김승옥 소설은 대중서사물임에도 선악의 이분법과 도덕적 구원에 대한 감상주의적 비전 등으로 요약되는 멜로드라마의 문법과 거리가 멀다.

16) 김승옥은 소설 쓰기의 전통윤리 또는 절대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에는 모럴리스트들이 할 말이 많아지는 법이라면서, 『강변부인』은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의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그린 것이며, 사회윤리적인 지평에서 이루어진 실험임을 강조한다. 김승옥, 앞의 책, 14쪽.

17) 김상봉에 의하면, 도덕(윤리)은 어떤 타자적 원인에 의해 떠밀려 생겨나는 것이 아닌 선 자신이 원인이 된 자발성 혹은 자유의지라는 점에서 밖에서 주어지는 타율적 강제의 체계인 당위적 규범과 구별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도덕이나 당위적 규범의 근본 관심은 인간의 자유의 실현이 아니라, 언제나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통합과 획일적 질서 유지를 핑계 삼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김상봉,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한길사, 1999, 125쪽.

계산을 통해 서로를 향한 애착마저 발명함으로써 결혼이라는 자신들의 욕구(wants)를 실현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러한 사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고와 행동하는 자본주의적 개인의 출현을 함축한다.[18] 감정이나 열정마저 차갑게 관리하는 호모 센티멘탈리스트들은 중산층의 약삭빠른 현실감각을 보여준다.[19] 결혼은 엘리트 청년 정명훈과 순진한 처녀 수정이 속물로 거듭나기 위한 속화된 성숙의 제의인 것이다.

주인공인 명훈은 이렇다 할 정치적 신념이나 문화적 이상이 없이 안락과 편리를 추구하는 젊은이로, 60년대 후반 경제 성장의 과실 속에 출현한 속물 세대를 대표한다. 그는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거쳐 유수한 무역 회사에 다니는 28세의 젊은이임에도, "남아다운 야심"을 품기는커녕 초등학교 동창생인 종숙과 점심을 먹고 여관에 가는 생활을 통해 서울살이의 소소한 재미, 즉 도락(道樂)을 향유하는 데 몰두한다. 그러나 이렇듯 퇴폐 청년의 면모는 그가 인정과 존경이라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증거가 아니다. 그는 피 말리는 경쟁과 사회적 투쟁을 치르지 않

18) 조지프 슘페터는 쉴 새 없이 내부로부터 경제구조의 혁명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오래된 것을 부수며, 멈추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한다. 자본주의 문명은 일상생활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합리적 사고와 행동의 기본 훈련을 받는다. 모든 논리를 경제적 결정 패턴에서 도출된다. 다시 말해 경제적 패턴은 논리의 기본 기초이다. 경제활동에서 얻어진 합리적 습관을 일단 형성되기만 하면 유익한 경험이 갖는 학습 효과 때문에 인간 행동의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다. 자본주의는 경제적 부문에서 규정되고 수량화된 타입의 논리, 태도는 인간의 사고와 철학, 인간의 의료 활동, 우주관, 인생관, 미와 정의에 관한 개념, 그리고 그의 정신적 포부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것을 자신 속에 예속시키는, 즉 합리화하는 정복자의 질주를 시작한다. 또한 자본주의는 근대 과학의 정신적 태도뿐 아니라 인재와 수단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조지프 슘페터, 변상진 역,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한길사, 2011, 123쪽.

19) 감정사회학자인 엘바 일루즈는 "감정은 사회 이전 문화 이전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극도로 압축되어 있는 문화 의미들과 사회관계들 바로 그것이다."(15쪽)라고 주장한다. 우리의 감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아와 정체성을 제도화해왔다. 감정은 순치되지 않은 야생적 활기로 생동하기보다 이성적으로 그것을 적절히 관리 및 활용하는 새로운 주체를 만들어내는 근대적 양식이고 구조이다. 특히 그녀는 자본주의의 형성과정은 감정문화가 형성된 과정과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한다.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010, 123쪽.

고 쉽고 안전하게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자 할 만큼 영악하다. 그는 자신이 속물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즉자적 속물로 중매시장에서 자신의 뛰어난 스펙을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삶과 교환해 줄 부잣집 딸과 결혼해 실속을 챙기려고 한다. 맞선녀인 수정은 판사였던 남편이 죽자 사업을 경영하며 상당한 자산을 거머쥔 어머니를 두었다는 점에서 상품 가치가 높은 배우자이다. 이처럼 의미 있는 이상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

> "야망? 국가의 권력을 쥐고 흔들고 싶고 삼군을 호령하고 싶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흐르게 하고 싶단 말이지? 농담하지마. 우리 같은 전형적인 서울내기는 그런 거 할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런 건 촌놈들 한테나 맡겨둬. 염치불구, 뻔뻔스럽게 들이대는 배짱, 그 오기만만, 치기만만, 쥐뿔만하게 아는 걸 가지고 저만 옳다고 들이대는 촌놈들이나 할 일이야. (중략) 사실 사는 재미로야 우리나라에선 서울만큼 재미나게 살 만한 데가 어디 있니? 하지만 서울 사람 아니면 서울에서 사는 재미를 모르거든. 얼핏 보면 촌놈들이 온통 서울을 차지하고 설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제 이름 석자나 날려보려고, 그게 아니면 일확천금할 백일몽이나 꾸며 고향 선배니 뭐니 찾아다니느라고 알짜 재미는 도무지 모르고 지내거든. 헛거야. 너 엉뚱한 꿈은 아예 꾸지도 말고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 위대하다면 차라리 그 편이 위대한 거야."(24쪽)

명훈의 '야심 없는 속물'의 면모는 철들 무렵 일간지의 사회부 기자인 형의 조언을 듣고 난 이후로 형성된다. "사는 재미로야 우리나라에선 서울만큼 재미나게 살 만한 데가 어디 있니"라는 형의 말은 서울은 당대인이 욕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몰려있는 선망의 장소이며 "전형적인 서울내기"는 촌놈처럼 야심을 품을 필요가 없는 기득권임을 암시한다. '야심'은 출세나 성공의 바탕이 되어 줄 이렇다 할 사회 자본을 갖지 못했을 뿐더러 거대한 명분이나 이념에 사로잡힌 주변부인들, 즉 '촌놈'의 어휘이

다. 즉 그것은 남성성 결핍에 시달리는 하위계급 남성 주체의 열등감을 역설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내기들은 "촌놈"들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현실 감각을 길러야 한다. 야심 없는 삶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흐르게 하고 싶단 말이지"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랑이나 정의 같은 이상적 가치가 아니라 손 안에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탈정치적이고 탈역사적인 처세술로, '서울내기'들의 인생의 가치 판단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었음을 암시한다.

기자인 형의 말은 6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가 물질적 번영을 이룩했지만, 개인이 '자기 진정성' 같은 도덕 철학을 외면한 채 빗나간 인정투쟁에 사로잡혀 있음을 뜻한다. 촌놈들 역시 제 이름 석자나 날려보거나, 일확천금에 대한 백일몽으로 협잡을 마다 않는 속물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그것은 비지니스로 전락한 정치에 대한 준열한 비판이라기보다 진짜와 가짜, 진정성과 속물성 따위를 구별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냉소적 판단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기성세대인 형에게서 비롯되어 명훈을 통해 확고해진 처세술은 현실 추수적인 것으로, 이상적이고 탁월한 것을 음미할 능력의 부재라는 속물의 한계를 역설한다. 전형적인 서울내기들의 삶을 인도하는 두 가지 좌표인 '실속'과 '재미'는 속물에게는 '좋은 삶(eudaemonia)'의 지평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촌놈들은 자기 자신이 꾸며낸 드라마가 아니면 도통 믿으려 들지 않"(25쪽)는다는 서술이 보여주듯 인간의 성찰적 내면은 한낱 기만적인 몽상이나 환상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도덕의 기준조차 폐기될 때 부와 권력을 향한 날 것의 욕망만이 오롯이 남을 수밖에 없다. 삶을 인도할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조차 느낄 수 없다는 것은 주체의 동물화를 반증한다.

명훈은 이렇듯 철들 무렵 완성된 세속 철학을 바탕으로 냉철하게 실속과 재미를 추구해간다.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는 합리적 삶의 태도는, 낭만적 사랑에 빠지기보다 중매로 결혼하겠다는 계획으로 나타난

다. 그는 춘천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무렵, 사귀던 여교사가 자신을 좇아 서울까지 오고, 자신에게 실연을 당하자 스스로를 망가뜨리려는 듯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부담감 또는 죄의식"을 느낀 후로 합리적인 거래로서 중매혼을 선택한다. 그럼에도 그가 종숙과 은밀한 관계를 반년이나 지속해온 것은 그녀가 "야심 같은 건 외면해버리고 서울 사회가 줄 수 있는 사소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미"(31쪽)를 즐기는 자기와 유사한 부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획한 대로 수월하게 이익을 거머쥐어 왔던 명훈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다. 수정이 사설 탐정을 통해 종숙의 존재를 알고 명훈에 대해 실망하자 결혼 계획이 위기에 처하며, 종숙은 명훈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해짐으로써 그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두 여자를 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훈에게 이렇다 할 서사적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 종숙은 제 욕망을 위해 순진한 명훈을 더럽혔다는 죄책감으로 그를 떠날 것을 결심하고, 수정은 순진함의 몽상에서 깨어나 종숙과의 대결에서 명훈을 빼앗기 위해 전략을 짤 만큼 속악해진다. 그리고 명훈은 성적 방종 혹은 무책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좀더 건전하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종숙은 병리적인 취향을 가진 요부로 형상화되지만, 한국인의 물질주의적인 인정의 문화에서 상처입고 모욕당한 자이다.[20] 그녀는 막대한 재산가인 아버지 덕분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중학교에 들어간 후 집안이 망하면서 계층 하락을 경험한다. 그녀는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속물적 태도를 체화하지만, 현실의 장벽에 막혀 꿈을 좌절당한다. 이 후 그녀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명훈과의 관계를 통해 부유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한다. 명훈은 어린 시절 학예회에서 함께 춤을 춘 짝으로 그녀의 "병적인 향수"벽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인 것이다. "병적으로

20) 장은주, 「상처 입은 삶의 빗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통권 39호, 나남출판사, 2008, 29쪽.

자기의 어린 시절에 집착하는"(163쪽) 성향은 그녀가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인정과 존경의 자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인간은 모두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근대의 기본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차원에서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서열화된 가치들로 인해 인간의 등급이 매겨지고, 존중 혹은 모욕이 주어지는 차별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종숙의 이야기를 유별나다고만 할 수 없다. 한국의 근대화는 존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신분상승을 경주해온 근면하고 성실한 개인들이 이룩한 성취의 총합이기 때문이다. 김승옥은 사회에 만연된 속물성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기보다 어떤 전략을 사용해서라도 성취하라는 경쟁주의적 가치관에 대해 무도덕한 태도를 취한다. 수정이 종숙의 존재를 알고 난 후 영리한 요부로 변모하는 과정은 일종의 성숙으로 의미화된다. 수정은 명훈의 음란한 사생활을 알고 분노하지만 이내 빌딩가의 직장 여성들을 보며 자신이 자립해 살아갈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집안 역시 "남자가 정략결혼을 해올 만큼, 별나게 가진 게 없다."(201쪽)는 냉철한 판단에 도달한다. 그녀는 결혼을 가장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지한 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적으로 삼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싸운다"(145쪽)라는 의식의 조작을 통해 명훈에게서 종숙을 떼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수정은 순진함을 벗고 현실 속에서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보통 여자, 즉 속물이 된다. 수정의 처녀다운 순진함은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무능력의 증거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된다.

수정은 자신의 처녀성을 던지는 과감한 투기를 통해 명훈을 유혹하는데, 이는 성적 자유주의와 무관한 것으로 영리하게 처신하지 않는다면 좋은 기회를 놓칠 뿐이라는 속물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각성한 수정은 자신에게서 가장 값나가는 가치를 걸어 결혼이라는 투기의 전장에서 승리의 깃발을 움켜쥐려는 것이다. 처녀성의 가치는 수정의 돌발적인 유혹에 명훈이 묘한 감동을 느끼는 데서 증명된다. 그는 수정의 순결한 도발을

통해 자신이 "나무랄 데 없는 청년", 즉 "예의바르고 셈이 깨끗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청년", "세상의 체면, 관습을 존중하는 사람"이지만, "일단 자기만의 문제를 앞에 대하면 그는 도덕·부도덕을 무시하는 이기주의자"라는 점을 반성한다. "수정의 육체를 과거에 다른 여자들의 그것에 대해서와는 다르게 단순한 하나의 여체로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로 본 것은 아닐까?"(238쪽)라는 서술은 그가 수정을 통해 기성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습득함으로써 건전한 성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암시한다. 즉, 그녀는 종숙에게서 찾을 수 없는 수정의 처녀다운 깨끗함을 통해 무절제한 욕망을 반성하고 '건전한' 삶의 미덕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기실 명훈을 쟁취하기 위한 수정의 변화는 처녀다운 순결함에 대한 조롱어린 시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균열적이다. 수정은 대학에 다녔지만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며,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성' 규범을 극도로 의식하는 수동적인 여자이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력한 위치를 깨달은 그녀는 눈치보기, 애원과 갈망, 기다림 같은 여성적 수동성의 상태를 벗어난다. "현실적인 태도로 처리해갈 생각을 해야지, 네가 무슨 철학자라구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편에서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하구 있니 그래?"(203쪽)라며 수정의 낡은 도덕률을 비웃는 주변인들의 조언에 따라 현실주의자로 변모한 것이다. 수정은 호텔에서 명훈과 깊은 스킨십을 나눈 후 "전 그 여자(종숙을 뜻함-필자)가 명훈씨를 사랑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승리자가 되고 싶어서요."(242쪽)라고 말한다. 이는 그녀가 처녀다운 순결함으로 명훈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내던질 만큼 속악해졌음을 뜻한다. 처녀성은 어떤 정신적, 추상적 의미를 갖기보다 남성적 만족을 안겨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일 뿐이다. 속물로 전락한 여성은 김승옥의 문학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일깨워주던 의미 있는 타자가 사라져버렸음을 뜻한다. 모든 것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됨으로써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가라는 질문은 불가능해진다. 이렇듯 도덕/부도덕을 따지지 않는 무도덕한 태도는 속물의 알리바이이다.

3. 건전한 도덕의 토대인 가정과 바람난 주부의 섹슈얼리티: 『강변부인』(1977)

『강변부인』은 B급 매체인 ≪일요신문≫에 연재된 장편 소설로 히스테리적이라고 할 만큼 외설적인 상상력을 보여준다. 중산층 전업주부인 민희는 남편의 직장이 있는 성동구청 근처 호텔에서 혼외정사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 맞은 편 방에 투숙한 남편이 출장 성매매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체포되기 때문이다. 부부의 혼외정사라는 엽기적인 설정과 노골적인 성 묘사는 70년대 한국판 ≪플레이보이≫를 자처한 ≪선데이서울≫[21] 등을 통해 선보인 포르노적 내러티브의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그것은 근대화가 요구하는 긴장과 억압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인에게 성적 쾌락을 안겨주는 소비 상품으로서 대중소설의 기능을 암시한다. 즉, 사회 전반에 만연된 성적 엄숙주의와 경제 성장에 의해 조장된 정직, 성실, 근면의 근대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불온한 욕망을 보여주는 한편으로[22] 건전한 도덕적 가치로 표방된 중산층 계급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하는 것이다.

국가 기구의 하부 단위인 성동구청의 주변에 위치한 호텔은 혼외정사, 성매매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정상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동력임을 역설한다. 민희는 단골 의상실의 윤여사로부터 남진을 소개받아 서로의 사생활을 함구한 채 관계를 맺는다. 그녀는 자신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남진이 "경멸스러운 놈팡이"이기를 바란다. "전문가적인 눈치"로 자기의 비밀을 지켜주기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집 밖에서 남편

---

21) 이성욱은 "60년대 말에 창간된 ≪선데이 서울≫은 한국 대중문화사에 있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도 좋다. 출판 허가 받은 정기간행물, 그래서 검열 필터를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과 구성 그리고 소재의 화끈함 그리고 선정성은 당대 최고라 할만 했다. 사람들은 '한국의 ≪플레이보이≫지'라고도 했다."라고 쓴 바 있다. 이성욱, 『쇼쇼쇼-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생각의 나무, 2004, 86쪽.

22) 임종수 · 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44집, 2013, 95쪽,

이나 남편처럼 존경할 만한 남자들만이 풍기고 다닐 냄새"(248-249쪽)를 맡고 "뭔가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듯 비참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남자끼리의 규범있는 사회의 그 싸아한 쇳냄새"는 민희가 자신의 일탈적인 욕망에 대해 죄책감과 절망적 심경을 품게 만드는 중산층의 아비투스이자 가부장적 규범의 감각이다. 남진은 나이트클럽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상스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지껄이지만, 백수나 제비가 아니라 성동구청 같은 관공서에 주로 출입하는 점잖은 직업 계층으로 사업이 방해받지 않도록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쾌락을 챙길 만큼 '건전'하다. 아내와 섹스 파트너, 사랑과 성을 별개로 분리하고 실속과 재미를 모두 추구하는 영리한 속물인 것이다.

민희가 남편 영준이나 섹스 파트너 남진에게서 감지하는 "싸아한 쇳냄새"는 냉혹함, 계산적 이성, 폭력성 등 개발 주체의 남성성을 환유한다. 영준은 38세의 중년으로 대학에서 건축과를 졸업하고 재벌급의 건설회사의 현장 감독으로 일해오다가 현재는 건축설계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가이다. 그는 전국토가 몸살 중인 건설 붐의 시대를 맞아 승승장구하는 중산층 계급의 전형으로 영동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에 매진하며 국가의 권위를 드높여 줄 강남개발사업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는 이렇다 할 사회적 책임 의식이나 도덕감 없이 "음성수입도 있고 자유시간도 있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도 많아서 좋"(253쪽)다는 이유로 현장 근무를 선택할 만큼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속물이다. 또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후 늙은이가 되어버린 서글픈 감정을 성매매 여성을 "물건 취급"(252쪽)하는 가학적 섹스를 통해 보상받고자 할 만큼 도착적 성욕의 소유자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아내를 포함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식적인 얼굴과 맨 얼굴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몸에 밴 어리광 같은 태도가 섞여 상대방은 대체로 그의 주장에 말려들고 나서도 그를 미워할 수가 없다"(252-253쪽)는 서술은 무의식에 자리잡은 유아적 나르시시즘과 반사회적인 욕망을 암시한다.

소설 속 모든 인물들은 점잖고 심지어 수줍어 보이는 모습 뒤에 속물

적 욕망을 은닉하고 있다. 영준이 사업을 번창시킬 목적으로 인맥을 맺고 싶어하는 강의원은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강의원'이라고 불리기 좋아하고, 그의 후처는 저명한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어린 남자 연예인의 성상납을 받을 만큼 탐욕스러운 섹스광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마치 모든 인간은 신분, 성별, 지위 고하를 떠나 욕망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양 탐욕스러움을 드러낸다. 민희네의 식모인 순자는 아파트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강아지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바람난 민희에 대한 선망/시기인 양 운전사 김씨와 성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운전사 김씨는 "탕아였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성실해뵈는 인상의 사내"(273쪽)이지만 부부의 비밀을 미끼 삼아 영준에게서 몫 돈을 뜯어내는 한편으로, 민희를 능욕하기 위해 납치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채 저마다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물질적,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움은 한국 근대성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 사람들의 집단 심성으로 그려진다.

김승옥은 개발기 한국인의 속물의식과 도덕의 부재를 중산층 가정 부인인 민희의 탈선으로 젠더화한다. 그리고 부권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정화라는 가부장적 상상력의 상투성에 기댐으로써 파시즘 국가의 젠더 정치와 공모한다.[23] 70년대 들어 사회 각 영역이 보수화되면서 서구화, 현대화의 한 축도로서 중산층 핵가족과 사인화(私人化)한 존재로서 주부에 대한 규제적 시선이 증가한다. 60년대와 달리 핵가족은 한국의 전통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미화되며, 중산층 주부는 권태로울 만큼 한가한 유한 계급으로, 탈선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사로잡히기 쉬운 불안한 존재로 포착된다. 이러한 비판 여론은 여성의 고학력화와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성장한 권리의식으로 인해 부계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질서나 고

23) 김승옥은 "전통윤리 또는 절대 가치가 붕괴되는 시대에는 모럴리스트들이 할 말이 많아지는 법이다."라고 전제하고 『강변부인』은 불륜과 섹스라는 통속적 요소를 다루고 있지만 사회의 비윤리적 사태를 포착하려는 리얼리스트의 의욕을 담은 것으로, "쓴웃음 한 번 웃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코미디-그것이 모든 비윤리적인 사태의 형상인 것 같다-"적 요소를 통해 "인간의 비리와 약점"을 보이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앞의 책, 14-15쪽.

정된 젠더 역할이 흔들리는 데 따른 사회의 불안을 보여준다. 나아가 그것은 부계(부권)중심의 가족 담론을 통해 여성들을 재배치하는 한편으로 사회 전체를 도덕화하려는 정치 권력의 의도를 담고 있다.[24] 국가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여성 자신의 선택권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공리적 이익을 위해 조절,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포착한다. 한 예로 근대화와 경제 개발 정책의 일환인 가족계획 사업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근대성, 경제적 부(富), 행복, 능률, 복지와 연결지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생산력의 요소로 만들었다.[25] 이는 생식의 목적과 분리된 성적 쾌락에 대한 죄의식을 사회 전반에 유포하는 한편으로 여성을 현모양처 관념과 연결지어 성적 주체성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민희는 도덕적 정화를 명분 삼아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이 통치의 표적으로 삼은 유한마담의 전형이다. 삼십대 중후반으로 대졸 출신인 그녀는 시부모로부터 독립해 아이 하나를 둔 전업주부이자, 신흥 부유층의 주거 공간인 한강변의 60평 아파트에서 식모와 운전기사를 거느릴 만큼 생활의 여유를 누린다. 국가 프로젝트로서 근대화의 기치가 울려 퍼지는 서울에서 민희는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생산 노동에 참여

---

24) 60년대 사회에서 가족은 사회발전, 경제발전의 명분과 결합해 근대화의 지표로 재구성되었다. 이로 인해 소가족적, 부부 중심적 핵가족론이 긍정적 차원에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효와 노인 문제가 부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주부들을 재가정화하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핵가족 비판론이 등장하게 된다. 핵가족 비판론은 정치적으로는 60년대 말 이후 가속화된 정치 권력의 보수화 및 민주주의의 후퇴와 관련성이 깊다. 김혜경, 「논쟁의 장으로서의 "가족"」, 『조국 근대화의 젠더 정치-가족 • 노동 • 섹슈얼리티』, 아르케, 2015, 42-54쪽.

25) 출산율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주목되면서 가임기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통제, 관리의 대상이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여성의 성을 정치, 경제 담론의 주요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여성의 성적 쾌락과 임신의 연결 고리는 분리되고, 여성에게 자녀교육에 헌신하고 가정에 정신적 안식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근대적 모성의 역할이 부여된다. 이성숙,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책세상, 2009, 172-176쪽.

하기는커녕 호텔에 드나들며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서양 물건에 현혹된다. 개발주의의 이념에 부응하지 못하는 비국민으로서 민희의 퇴폐성은 특히 과잉 성욕과 혼외정사 같은 성적 일탈에서 극에 달한다. 그러나 민희는 보수적인 성도덕의 기만 혹은 허위를 폭로하는 위반적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고결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균열적이다. 대중소설 속의 악녀가 통상적으로 이렇다 할 서사적 맥락을 결여한 채 타고난 색정광으로 묘사되는 것과 달리, 민희는 모랄의 위선적 측면에 대한 반감 내지 저항감으로 일탈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민희에게 불륜의 파트너인 남진은 오로지 정사를 위해 필요한 익명적 신체로 둘 사이는 인격적 관계를 결여하고 있어 외도는 낭만적 사랑과 구별된다. 그것은 "체념이나 규범으로부터 해방된 시간"(246쪽)을 향유하기 위한 '탈주'로서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이분법을 통해 사회 전체를 도덕화하려는 정치 권력에 대한 위반의 욕망의 충동을 담고 있다. 그녀는 호텔에서 남편의 변태적 취향을 발견한 후 "그것이 왜 난잡하단 말인가! 그것은 '난잡하다'고 표현되어서는 안 된다. 아마도 '다양하게'라고 표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262쪽)라고 항변한다. 이는 성 본능이 사회 관계와 규범에 의해 제재를 받는 데 따른 반발감을 뜻한다. 민희는 대학 시절 동창생인 기일이에게 강간당한 후 성적 욕망에 눈 뜬다. 그러나 그녀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낼수록 기일이 자신을 "수치심을 내던져버린 한 마리 암컷"(308쪽)으로 취급하자 품위 있는 여성으로 대접받기 위해 욕망을 숨기는 한편으로 자위 행위에 몰두한다. 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공리적 대상이 됨으로써 극도로 순결하고 전통적인 성녀와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악녀라는 가부장제의 이분법이 공고화되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여성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억압보다 사회에 만연한 엄숙주의와 성의 보수화에 대한 반발감을 그려내기 위해 여성 인물을 도구화한다.

> "가정에서의 섹스란 엄하게 다스려 조그맣게 가둬두면 둘수록 가정의 다른 부분들, 즉 육아라든가, 문화적 취미생활이라든가, 친척들과의 보다 활발

한 왕래라든가, 재산을 불려나간다든가 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질펀하고 시뻘건 낯짝을 한 자극적인 섹스란 놈은 어디까지나 가정 밖으로 몰아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시뻘건 낯짝을 하고 있는 녀석과의 교섭이란, 내 가정이 제대로 잘 굴러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때때로 영화 구경을 가거나 보석반지를 사듯, 자신에게 속해 있는 죄스러운 욕망을 달래주는 정도로 슬그머니 가져야 하는 것이었다."(261쪽)

위의 인용문은 혼외정사의 근저에 뜻밖에도 "섹스에 대한 근원적인 경멸감 내지 죄의식"(261쪽)이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성한 가정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건전과 외설의 이분법이 형성됨으로써 생식이나 혼인 관계로부터 벗어난 섹슈얼리티가 불온한 것으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개발기 가정은 자유로운 개인이 도덕적 삶을 꾸려가는 공간이 아니라 근대화 프로젝트라는 신성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호명된 장소이고, 부부는 국가의 번영과 가족의 신분상승을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인 것이다. "남편이란 아무래도 신성한 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309쪽)이기에 "시뻘건 낯짝"으로 표현된 일탈적인 욕망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는 민희 나름의 도덕의식은 고결한 섹슈얼리티 규범에 대한 자의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혼외정사는 반사회적인 욕망으로부터 신성한 가치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자구책이 되는 기괴한 논리가 성립된다.

소설의 후반부에 이르면 민희의 성적 모험은 파국적 결과를 맞는다. 민희는 부부 동반으로 남편의 사업차 방문한 강의원의 별장에서 강의원 후처의 외도를 목격한 것을 계기로 강의원의 조카인 최양일과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이른바 상류사회 사람들이 음침하게 숨기고 있는 그 용의주도한 비밀주의와 복수심의 희생물"(337쪽)이 된다. 그리고 민희는 제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힘으로써 성적 쾌락을 생활의 구분

일로 한정해오던 자기 나름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최양일과의 관계에 탐닉하게 된다. 결국 이야기는 바람 난 민희가 혼외정사의 현장을 영준에게 발각 당해 매질을 당하며 부덕을 어긴 욕망을 심문, 처벌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성재엄마라고 부르자, "사회적 관계 속에서라야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자여. 네 이름은 병신이다"(385쪽)라는 체념적 인식을 통해 부계 사회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위의 주체성은 용인될 수 없으며, 여성에게 주어진 유일한 정체성은 모성임을 확인한다.

민희와 영준은 현실적인 감각을 통해 가정의 위기를 수습한다. 민희는 강의원 부인의 계략에 의해 어쩔 수없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라고 방어함으로써 자신 속에 타오르고 있는 욕망의 실체를 숨긴다. 그리고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우리라고 편할 것 같아요?"(391쪽)라며 영준이 강의원이 속한 상류사회 사람들을 통해 얻게 될 사업적 이익을 환기시켜 갈등을 수습한다. 영준은 민희의 말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속물의 계산 감각을 회복하고, 민희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을 받음으로써 가족의 엄격한 통치자로서 권위를 획득한다. 그러나 부권 중심의 가족 질서는 분별없는 욕망과 이기주의를 넘어선 양심과 도덕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민희는 교사에게 아부하는 교육 엄마들과 돈 봉투를 받는 선생님들에게 실망하고 자신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영준은 "그것도 다 경쟁"이라며 극성스러운 교육 엄마들의 행위를 추켜 세워 사태의 참된 진실을 외면하고 불공정한 이익 추구 행위를 "좋은 취미"(294쪽), 즉 도덕인 양 기만한다. 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태도는 타율적 권위 앞에 순종하거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생존을 위해 가장 영리한 선택이라는 속물의 철학을 들려주는 한편으로 가족이 숭고한 도덕적 가치라기보다 신분 이동을 위한 집합체임을 암시한다.

4. 결론

일반적으로 대중소설은 현실의 타락성을 환기시키는 막장적 요소의 다른 한편에 삶과 사회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는 모랄을 제시하는 서사적 관습을 공유한다. 막장적 요소의 다른 한편에 물질적, 성적 욕망 추구를 부끄럽게 만드는 숭고한 희생자를 중심으로 사회의 타락을 정화하기 위한 도덕적 비전이 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김승옥의 소설은 센티멘탈한 도덕의 자취를 찾을 수 없는 하드보일드한 통속으로 이렇다 할 이상적 목표를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자기보존과 쾌락을 추구하는 서울 중산층을 통해 속물/동물화된 삶을 그려낸다.

이들 작품은 개발독재기의 많은 소설이 그러하듯이 주체성이 극도로 억눌림으로써 좌절한 지식인이나 예술가나, 타락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진정성의 이념을 외면하고 자괴감에 사로잡힌 우울증적 남성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발 주체인 남성들은 더 이상 개인의 성장과 국가의 발전론적 도식을 겹쳐서 사유하지 않을 만큼 불온하고, 때로 근면과 성실이라는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조롱하는 듯 일탈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남성 주체들은 개인주의적, 반국가주의적이며 성장-발전을 거부한 위험한 여성들의 자유와 욕망을 비판하고 통제하는 부권의 주체가 됨으로써 파시즘 국가의 일원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1. 자료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1: 무진기행』, 문학동네, 1995.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4: 강변부인』, 문학동네, 1995.

2. 단행본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대』, 천년의 상상, 2015, 79쪽.

김상봉,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한길사, 1999, 125쪽.

김혜경, 「논쟁의 장으로서의 "가족"」, 『조국 근대화의 젠더 정치-가족・노동・섹슈얼리티』, 아르케, 2015, 53-54쪽.

김혜련, 『아름다운 가짜, 대중문화와 센티멘탈리즘』, 책세상, 2005, 67-95쪽.

김홍중, 「삶의 동물/속물화와 참을 수 없는 귀여움」,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55쪽.

송태욱, 「김승옥 소설의 독자를 찾아서」, 『르네상스인 김승옥』, 엘피, 2005, 71-74쪽.

이성숙, 『여성, 섹슈얼리티, 국가』, 책세상, 2009, 172-176쪽.

이성욱, 『쇼쇼쇼-김추자, 선데이서울 게다가 긴급조치』, 생각의 나무, 2004, 86쪽.

이 한,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 미지북스, 2016, 17쪽.

조은・조주현・김은실, 『성 해방과 성정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39쪽.

리하르트 반 뒬멘,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2005, 252쪽.

앨리스 페인 해케트, 이임자 역, 『베스트셀러의 진실』, 경인문화사, 1998, 93-103쪽.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010, 123쪽.

조지프 슘페터, 변상진 역,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한길사, 2011, 123쪽.

찰스 테일러, 송영배 역, 『불안한 현대사회』, 이학사, 2001, 134쪽.

3. 논문

김경연, 「통속의 정치학 : 1960년대 후반 김승옥 '주간지 소설' 재독(再讀)」, 『어문론집』 제62집, 중앙어문학회, 2015, 373-420쪽.

김은하, 「이동하는 모더니티와 난민의 감각-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지방 출

신 대학생의 도시 입사식(入社式)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309-335쪽.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 '헝그리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제 32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273-313쪽.

이은영,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 연구 : 「야행」과 「보통여자」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2호, 한민족어문학회, 2012, 427-450쪽.

임종수 · 박세현, 「『선데이서울』에 나타난 여성, 섹슈얼리티 그리고 1970년대」, 『한국문학연구』 44집, 2013, 91-136쪽,

장은주, 「상처 입은 삶의 빗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통권 39호, 나남출판사, 2008, 14-34쪽.

Abstract

A narration of moral crisis during development period and birth of materialistic person

: Focusing on Kim Seung-ok's popular fictions

Kim, Eun-Ha

As Kim Seung-ok's 『Jane Doe』and 『Riverside Wife』are a Kinsey Reports in the Seoul style for an ideal action of Middle Class in Urban or a scandal, it is borrowing a grammar of popular narrative in that it shows a naked skin of Korean Modernity. Especially, strong sexuality of 『Riverside Wife』gives delight to the readers, which offsets felling of helplessness and tension that the fascism society brings to bear on, on the other hand, it functions well as a product of a popular fiction that can console a sense of inferiority that originates from class differentiation or can give moral superiority. This popular fiction, however, has a character of studying the philistinism of middle class that compares delight with benefit within reality, so it is beyond imagination of pornography as a box office hit. The reason why is that it visualizes a distinguished sense of calculation that middle class persuades an actual profit, which has self-governed ability of realizing identity shift, on the other hand, that it shows aberrant and improper impulse that lurks in the disordered life that loses ideal things.

These popular fictions show the course of changing man subjectivities to healthy materialistic person, as they that entered

into a city of desire referred as Seoul during developmental dictatorship period lost 'female' as 'significant others' that lets them know their false and gains dominative masculinity focusing on partial family. AS the title implies, in these fictions, woman is the central figure, which is very rare in Kim Seung-ok's work, but female is different from his previous novel, she loses moral and mythical significant, so she falls into a common materialistic person or an unpleasant symbol that threatens a social order with uncontrolled obsessed-sexual desire. Female that is exiled from mythical world seems to get liberty, as getting physical and sexual body, but she is incorporated into a home that the hegemonic male subjectivity of developmental state controlled. This is also to foretell that the male subjectivities of Kim Seung-ok will be born as a patriarchal moral subjectivity, not getting self-honesty against popular interests, as losing female as a reason of self-interrogation.

Key words : materialistic person, popular novel, Seoul, modernization, gender politics, normative femininity, virtuous sexuality, discourse of sexuality, fascism etc.

■ 본 논문은 2017년 3월 15일에 접수되어 2017년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